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¹⁵“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¹⁶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내~~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¹⁷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¹⁸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¹⁹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²⁰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²¹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1.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형성(Spiritual Formation)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이번 주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는 또 하나의 강력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금요기도회 때마다 이러한 간증을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간증을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이야기가 있고, 우리 모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매주 금요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새 학기를 시작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식이 자라나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욱 성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훌륭한 음악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주 중 가장 중요한 날인 주일, 곧 주님의 날(Lord's Day)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Experiencing God)”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영적 형성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 형성의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빚어 가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십일조 — 우리의 소득과 재산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일예배 — 한 주 중 가장 중요한 날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보내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금요기도회가 어떻게 주님의 날과 연결되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는 안식일을 향해 들어가는 시작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안식으로 인도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다음 날 곧 첫째 날인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도들의 교제, 특별히 우리의 소그룹에 대해 깊이 나누었고, 왜 소그룹이 그토록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소그룹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만약 어떤 것이 기도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소그룹 모임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개의 소그룹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 모든 멤버들이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큰 은혜를 누렸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적 형성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영적 형성 시리즈에서 살펴본 세 가지는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변화되면, 주님을 위해 살게 되고 다른 모든 것은 그다음입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십일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주일예배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며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그룹을 통해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져,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교하게 준비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기초는 바로 우리의 삶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경험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우리의 제자훈련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훈련받는 집중적인 제자훈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을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여 이 제자훈련에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7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의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에게도 던졌던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두려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인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원어인 헬라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알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단어는 기노스케테(*ginoskete, γινώσκετε*)입니다. 이 동사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으며, 여기에는 계속되고 지속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노스케테(*ginoskete*)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과 본성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자처럼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매우 잘 아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학자들은 많은 신실한 성도들보다 성경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없는 성경 공부는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깊이 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기도가 어렵더라도,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자신을 이끌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하기 전과 후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학문적인 공부에 머물러 있습니까? 마치 미적분을 공부하듯 말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미적분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Experiencing God)”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바로 기노스케테(ginoskete)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훈련을 마치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한 집중적인 12주 과정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를 세워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훈련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후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변화와 은혜가 가득한 12주의 제자훈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12주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수많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는 아마 결혼식 날일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많은 결혼식의 주례를 맡아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혼식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사실 내일도 저는 한 아름다운 커플의 결혼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신부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청소년부 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상담을 통해 영적으로 결혼을 준비할 것이고, 결혼식 전날에는 리허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는 준비를 위해 모두가 몇 시간 일찍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위해 몇 시간씩 일찍 도착하여 준비한다면, 한 주 중 가장 중요한 날인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는 얼마나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단지 또 하나의 감정적인 설교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주일예배가 시작되기 10~15분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찬양과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날마다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BVC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의미하신 것일까요? 우리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의 몇몇 청년들에게도 나누었던 이야기이고, 결혼을 앞두고 상담하는 모든 커플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말이지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가서 “토마스 목사님이 정신이 나가셨나 봐. 결혼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는 9월이면 결혼한 지 21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던 날보다 오늘 리나를 더 사랑합니다! 사랑은 단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1년 동안 리나와 제가 해 온 것은 바로 함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랑은 단지 남녀 간의 낭만적인 사랑인 에로스(eros)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제와 친구 사이의 사랑인 필리아(philia), 부모와 가족을 향한 가족적인 사랑인 스토르게(storge),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랑,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나누는 아가페(agape)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관계가 점점 깊어질수록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회 안의 교회”인 소그룹이 바로 이런 곳 아닙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걸어가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삶을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평생 교회를 다녔다면, 이 질문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아마 이렇지도 모릅니다. “물론이죠, 토마스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평생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혹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단지 하나의 개념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매주 집과 교회를 오가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작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personal relationship)를 맺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또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걸으며 여러분을 주님께 더욱 가까이 이끌고, 여러분과 함께 삶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처음의 뜨거운 불꽃은 꺼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것을 흔히 “번아웃(burnout)”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아 왔습니다. 또는 여러분 가운데는 평생 교회를 다닌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까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는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찾고 계셨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느 날 여러분의 눈을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만을 위해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왔든 상관없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든, 아니면 이제 막 여러분을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BVC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제자로 세우시고, 여러분과 관계를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돕는 분명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Bridge of the Valley Church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3.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이끌고 계시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도 아파하게 하시고, 길을 잃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 함께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잃어버린 양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모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십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하며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수입의 10%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며 하늘에 보물을 쌓습니다! 세상은 한 주를 마무리하며 금요일 밤에 밖으로 나가 즐기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사회생활을 유지하려 하지만, 여러분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앉아 기도하며 안식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려고 애쓰지 않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며 또다시 시작될 바쁜 한 주를 준비합니다. 우리도 쉼을 누리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루를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바하마로 여행을 떠나 해변에 누워 마가리타를 마시며 휴가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것을 더 원하게 됩니다. 선교지로 가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조정이 매우 어렵고 큰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삶의 조정을 해 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삶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저의 기도는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까지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추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핵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4.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우리의 구주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함께하라는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먹고살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표현은 한국이 1950년대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회복하던 시기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불과 5년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은 말 그대로 거리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 할 만큼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2026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불과 5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놀라운 성취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추구도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먹고살기 위한 삶에서 이제는 더 좋은 것, 더 고급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명품과 고급스러운 삶을 원한다면 한국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극심한 가난과 폐허에서 성공의 정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최고의 생활 수준을 이루는 것을 성공적인 삶으로 여기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 저는 그 가운데 영적 전쟁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인구 추세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속 자체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이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한국이 걸어온 이 여정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 모두가 추구하기 쉬운 삶의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다가 마침내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이제 단순히 먹고살기 위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미식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동차도 단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기능과 고급스러운 편의시설을 갖춘 차를 원합니다. 집도 단순히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삶을 보여 주는

여러 시설과 조건을 갖춘 집을 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가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 버릴 때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신의 힘과 꿈만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쌓아 올리려 했던 모든 것, 즉 풍요로운 삶과 안락한 삶, 안전하고 편안한 삶은 결국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한 채 추구하는 삶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선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알아가십시오.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일을 경험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의미 있고 충만한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과 다름없던 형제자매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바라보는 놀라운 삶뿐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누리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때 약속받은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맛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빚어 가시는 영적 형성(Spiritual Formation)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영적 형성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리즈가 끝난다고 해서 영적 형성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세워 가는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적 형성 시리즈 전체를 관통했던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불편함(inconvenience)”입니다.

내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불편함, 교회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불편함, 소그룹에 모여 함께 교제하는 불편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는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2027년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불편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12주 동안 금요일을 내어 토마스 목사님과 함께 제자훈련을 받는 불편함입니다! “일주일에는 한두 번 토마스 목사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라고 요구하실 때 경험하는 이러한 불편함은 초대교회의 열두 사도들로부터 초대교회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청교도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삶을 조정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어떤 삶의 조정을 해야 하는지 기도하며 생각해 볼 때, 위대한 신학자 C. S. 루이스(C. S. Lewis)의 글을 여러분과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글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매우 탁월하게 보여 줍니다.

C. S. 루이스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고쳐 가시는 살아 있는 집에 비유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됩니다. 배수시설을 고치고, 새는 지붕을 수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것들이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그 집을 허물고 다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나 아프고 이해되지 않아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간을 더하시고, 새로운 층을 올리시며, 탑을 세우고 돌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저 괜찮고 아담한 작은 집 정도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BVC** 가족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작은 집이 아니라 웅장한 집으로 빚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집에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충분히 풍요롭고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훨씬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삶을 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BVC**가 되기를 소망합니다.